

신라 화랑도 관점에서 본 김응렴(경문왕)의 화랑정신

A Study on the Hwarangs Mind of Eunglyum Kim in the point of the Thought of Sillas Hwarang

저자 (Authors)	조남욱 CHO NAM-UK
출처 (Source)	도덕윤리교육연구 ,(51), 2016.05, 81-99(19 pages) Journal of Moral & Ethics Education ,(51), 2016.05, 81-99(19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도덕윤리교육학회 korea society for moral &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29179
APA Style	조남욱 (2016). 신라 화랑도 관점에서 본 김응렴(경문왕)의 화랑정신. 도덕윤리교육연구(51), 81-9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16 13:1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화랑도 관점에서 본 김응렴(경문왕)의 화랑정신*

A Study on the Hwarang's Mind of Eunglyum Kim in the point of
the Thought of Silla's Hwarang

조 남 옥(부산대학교)

《요 약》

필자는 2년 전 「신라 화랑도에 내재한 유교사상」이라는 주제의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외연은 신라말기까지 넓혀가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의 연구는 그 후속적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주목된 부분은, 9세기 중엽 최고의 화랑이던 국선(國仙) 김응렴(金膺廉, ?~875)이 천명하던 겸손·검소·관용의 덕목 즉 '삼선(三善)'의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높이 평가되고 마침내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던 일련의 특별 상황이다. 이를 중심으로 파악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진흥왕 화랑수련의 핵심인 '서로 도의로써 연마함(相磨以道義)'에서의 '도의(道義)'의 뜻하는 바가 임전무퇴(臨戰無退) 정신도 포용하는 성격에서 벗어나 평화공존사회의 요건을 제일로 여기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김응렴 화랑정신으로서의 '삼선' 추구는, '골품제'와 같은 신라의 신분제도가 낳은 차별적 적폐 현상을 직시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중됨'을 높이 여기도록 하는 진취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 셋째는, 그 '삼선'의 도덕적 가치 추구는 비록 1천백여년 전 신라의 최고 지도층에서 칭송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의 민주시민인 우리들에게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윤리 교육의 저변에서는 이러한 덕성 중시 부분을 적극 반영시켜 '신라의 화랑은 통일 과업을 완수한 임전무퇴의 용병들이었다.'라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화랑(花郎), 화랑도, 화랑정신, 임전무퇴, 삼선(三善), 김응렴, 진흥왕, 경문왕.

I. 서론

우리나라 '삼국통일'이라 하면 먼저 '화랑(花郎)'이라는 말이 상기될 정도로 우리 역사에서는 화랑도의 역할이 높이 평가되어 왔다. 그리고 그 주요 인물로서는 이른바

* 교신저자: chonam@pusan.ac.kr

‘임전무퇴(臨戰無退)’의 정신으로 무장한 참전의 위인들을 지목하기 마련이었다.¹⁾

그런데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은 김대문의 『화랑세기(花郎世記)』에 이른바 “어진 보좌관과 충성스런 신하는 이를 따라 빼어났고 좋은 장수와 용감한 병사는 이로부터 생겼다.”²⁾라는 말을 인용하여 우수한 무관(武官)뿐만 아니라 훌륭한 문관(文官)도 바로 그 화랑에서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그렇다면 무관이 아닌 문관의 경우로서는 어떠한 인물을 거론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신라 화랑이 흥기하던 6세기 중반으로부터 근 3백년의 세월이 지난 통일신라 말기의 최치원(崔致遠, 857~?)도 「난랑비서(鸞郎碑序)」를 통해 당시의 화랑을 말하고 있음을 볼 때, 그 화랑도의 흐름은 통일시기 이후에도 부단히 계속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화시대의 화랑이란 또 어떠한 양상이었던 것일까?

이상의 두 의문점은, 최근 ‘화랑도에 내재한 유교사상’을 고찰한 필자³⁾에게 연구의 연속 과제로 와 닿았다. 즉 신라가 위기에서 통일로 전환시키는 격변기의 무인 양성 기능으로서의 화랑 이해라는 과거의 입장을 더 넓혀서, 이제는 역사에 전하는 화랑의 실체를 유기적으로 파악하면서 그 내재적 의의를 밝혀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필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및 근래까지의 화랑 연구물들을 검토 분석하면서 위에서 제기한 두 가지 의문을 풀어갈 수 있는 논거를 찾아보던 중, 그 대표적 사례로서 특히 9세기 중반의 왕족 출신 김응렴(金膺廉, ?~875)⁴⁾이 주목되었다. 그는 삼국통일 시기로부터 근 2백년 뒤의 이른바 평화기에 화랑의 최상위인 국선(國仙)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임금인 헌안왕(憲安王, 재위; 857~860)의 평가과정을 거쳐 그의 후왕에 오르게 되는 경문왕(景文王, 재위; 861~875)이라는 인물이다. 이 위인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설화를 낳은 주인공으로서 그 인품 관련 기사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상세히 전한다.

이 후대의 경우를 논하는 경우에도 우선은 역사에서 맨 처음으로 나타나 ‘화랑 그 자체의 총론’에서 실체를 찾아보고 또 그로부터 형성되는 핵심 맥락을 따라 논의하는 일이 필요하다. 실제로는 ‘화랑’을 말한다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러한 표현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그저 좋은 것들을 모두 포괄하여 화랑도의 영역으로 간주하려는 건강부회의 태도에는 신중함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II. 『삼국사기』 속의 화랑 총론과 그 구성요소

역사에서 ‘화랑(花郎)’의 맨 첫 기사는 진흥왕 말년인 37년(576)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봄에 비로소 ‘원화(源花)’를 높였다. 애초에 임금과 신하들이 인재를 알아낼 수 없음을 고민한 끝에 사람들을 무리지어 노닐게 하고 ‘그 행실이 올바름을 본(觀其行義)’ 뒤에 등용하려 했다. 이에 미녀 둘을 골랐는데 하나는 남모(南毛)라 하고 또 하나는 준정(俊貞)이라 했다. 그들을 따르는 무리 3백여 명을 모았는데 그 두 여인이 예쁘기를 다투고 서로 질투하다가 준정이 남모를 집으로 유인하여 억지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하고 끌어내 강물에 던져 죽였다. 준정은 사형되고 무리들은 화목함을 잃고 흩어졌다. 그 후 다시 미모의 남자를 뽑아 단장시키고 꾸며서 ‘화랑(花郎)’이라 부르며 받들게 했는데 무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⁵⁾

여기서 우리는 화랑 제도의 출현은, 인재를 찾아내려던 여성 위주의 원화 제도의 실패에서 비롯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국가에서 요구되는 행실 바른 인재 발굴의 원래 목적을 성취하고자 그 중심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조정해가면서 이름을 ‘화랑’으로 개칭했다는 것이다. 이 ‘인재 찾기’의 공통 성격은, ‘원화(源花)’/‘화랑(花郎)’의 용어에서 보이듯이 ‘예쁘고 아름답다는 뜻’을 담은 ‘꽃 花’자를 계속 사용하는 형태로 나타내기도 했다.

그리고 그 화랑의 요건으로는 ‘미모의 남자(美貌男子)’임을 전제하였다. 여기에 신라 시대의 신분중시 계층의식과, 당나라 영고정(令孤澄)의 이른바 “귀인의 자제에서 아름다운 자를 택하여 분장시키고 꾸며서 ‘화랑’이라 부르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높이 떠서 섬겼다.”⁶⁾라는 말에 유의해 보면, 서민 출신으로는 그 추종 무리의 일원은 될 수 있을 지언정 ‘화랑’의 지위에 이를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그 인물됨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었던가? 이에 관한 내용은 위 인용문에 이어진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①서로 도의로써 연마하고(相磨以道義), ②서로 노래와 풍류로 즐기며(相悅以歌樂), ③산수를 찾아다니며 먼 곳에도 이르지 않음이 없었다(遊娛山水 無遠不至). 이를 기하여 그 사람됨의 올바름과 바르지 못함을 알아내고(知其人邪正) 그 중에서 좋은 사람을 가려내 조정에 추천하였다(擇其善者 薦之於朝).⁷⁾

인물 알아보기의 첫 시도로서의 원화에서는 그저 무리지어 노닐게 할 정도로 말하는 것이었지만, 여기 화랑의 경우에는 좀 더 체계적인 과정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그 핵심적 구성요소가 바로 위 ①②③이 지적하는 바이다. 즉 이성적으로는 인생 보

평가치로서의 ‘도의(道義)’에 대한 지식과 실천능력을 높이고, 감성적으로는 가악(歌樂)의 방법으로 구성된 상호간의 공동체의식을 심화시키며, 실천적으로는 국토 곳곳을 돌아다니며 애국적인 단체 활동을 전개하는 행사 과정 등을 중심으로 각각의 사람 됨됨이를 알아보고 그 중에서 우수한 자를 국가의 공직자로 등용시키게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진흥왕대에 흥기한 화랑의 실상임을 김부식은 그렇게 요약정리하고 있었던 것이다.⁸⁾

이들 내용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보자면 역시 위 ①에서의 이른바 ‘도의’를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화랑 세계에서는 인간다움으로서의 도리와 올바름을 그렇게 부단히 연마하며 실천하는 역량을 보임으로써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추앙의 감동까지 일으키게 하였다. 그러면 그 도의의 지혜를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공부를 하는 것이었을까? 이러한 측면과 관련해서는 화랑 발흥기의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에 나타나는 『시경』 『서경』 『예기』 등의 오경 독서활동이 주목된다.⁹⁾

그리고 또 김부식은 그 진흥왕대로부터 3백년 뒤 최치원이 지은 난랑비문의 일부를 소개하며 후기의 화랑도에는 유불도 삼교의 요소들이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었다.

최치원의 「난랑비서」에 이르기를 “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고도 한다.(國有玄妙之道曰風流) 그 교리 해설의 근원은 「선사(仙史)」에 상세한데 실은 유교·도교·불교를 포함한 것으로 ‘여러 생명들과 사귀어 화응하는 것(接化群生)’이다. 집에 들어와서 효도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공자의 뜻이고, 무위자연 상태에 처하며 말을 넘어서는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노자의 기본취지이며, 모든 악행은 하지 않고 모든 선행은 신봉하는 하는 것은 석가의 가르침이다.”라고 했다.¹⁰⁾

이를 보면 그 당시의 충효정신과 무위자연 중시의 모습,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높이는 가치관 등은 바로 유교와 도교 및 불교에서 비롯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모두를 포괄하여 ‘현묘지도(玄妙之道)’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백 년 뒤의 기록이라는 점에 유의해 보면 그 ‘현묘지도’를 진흥왕대 화랑정신의 키워드인 ‘도의’와 그대로 일치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세월의 흐름을 따라 사상적 체계성을 갖춘 동양사상의 핵심 요소들이 진흥왕 때에 시작한 ‘도의’ 중시의 맥락을 따라 그렇게 융화되어 나아가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흔히 원광(圓光, 655~638)법사의 이른바 ‘세속오계(世俗五戒, 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以信 臨戰無退 殺生有擇)’를 화랑도의 기본정신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전하는 기사¹¹⁾ 그대로를 보면 그렇게 단언하기

엔 부담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올바른 인생관을 문외하고 그러한 말씀을 내린 원광법사가 화랑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없고 또 그 말씀을 듣던 귀산과 추항이 사군자들과 공유하며 인격을 높이는 데에 공감하던 청년들이지만 ‘화랑(花郎)’이나 ‘낭도(郎徒)’로 표현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선근은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면서 그 화랑 왕성기의 시대성과 ‘세속오계’에서의 ‘세속’이란 승려와 다른 ‘臣子’로서의 일반인을 지칭하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그 전체를 화랑도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¹²⁾

나아가 김충렬은 특히 통일신라 시기의 화랑들은 기본적으로 유불도 조화의식에 ‘입전무퇴’의 신념이 강인했다는 점을 직시하며 원광법사의 이른바 ‘세속오계’를 향해 ‘화랑오계(花郎五戒)’라고 지칭하기도 했다.¹³⁾ 하지만, 그 내용들이 진흥왕 때 화랑원론에서의 이른바 ‘상마이도의(相磨以道義)’에서의 ‘도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문답의 세 인물(귀산, 추항, 원광)들에게는 화랑세계의 그 어느 용어로도 표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러한 부담은 남아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백여 년 뒤의 왕족 김응림 관련 사료에서는 그와 달리 ‘국선’이라는 화랑 용어는 물론, 화랑 수련의 정수(精髓)가 나타났고 또 이를 계기로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는 등의 특별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삼국통일 이전에 형성된 화랑도(花郎道)가 그 말기에 이르기까지 연면히 지향되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밝혀주는 적극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III. 국선 김응림의 화랑정신과 등극 과정

1. 김응림에 표출된 화랑정신으로서의 ‘삼선(三善)’

이제 화랑 그룹의 최상위직 즉 국선(國仙)이던 김응림의 화랑정신, 그리고 그에 대한 임금의 평가 및 그로 인한 신라 제48대 군주로 등극하는 과정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우선 현안왕 4년(860)조의 기사가 주목된다. 그 서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9월 임금은 임해전에 여러 신하들을 모이게 했는데 왕족인 나이 15세의 김응림도 자리에 참석하였다. ㉞임금이 그의 의향을 알아보고자 갑자기 물기를 “㉞자네가 돌아다니면서 배운지가 여러 날인데 ㉞좋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가?(得無見善人)”라고 하였다.¹⁴⁾

여기 ㉞부분은 앞서 확인한 진흥왕대 화랑 원론에서의 평가 단계 즉 ‘사람됨의 올바

름과 다르지 못함을 알아냄(知其人邪正)’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요, ㉔는 앞서 확인한 그 원론에서의 ㉑㉒㉓ 모두를 포괄하는 성격의 것이며, ㉔는 ㉑에서 비롯한 구체적인 질문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삼국유사』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김응림의 나이 18세에 국선(國仙)이 되었다. 약관(弱冠)의 나이(20세)였을 때 헌안왕은 그를 불러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며 “㉕랑(郎)은 국선이 되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㉖어떤 특이한 일을 보았는가?(見何異事)”라고 물었다.¹⁵⁾

이 기록을 위 『삼국사기』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김응림이 화랑의 수장이었음을 그 직명으로 확인해 주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궁중잔치에서 임금과 상면할 때의 나이는 근 5세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불일치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위 ㉑의 측면은 표현상 숨겨진 상태이고 ㉕는 위 ㉔의 내용과 다를 바 없는데, ㉖와 ㉔를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 즉 『삼국사기』에서는 ‘좋은 사람(善人)’¹⁶⁾으로 지목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기술되었지만, 『삼국유사』에서는 ‘어떤 특이한 일(何異事)’로 말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포괄될 수 있게 한다는 표현의 차이다.

그러나 김응림의 응답 내용을 소개함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먼저 『삼국사기』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응답하여 아뢰기를 “제가 일찍이 세 사람을 보았는데 좋은 행실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왕이 “그 어떠한 것들인가?”하니, 아뢰기를 “하나는 높은 가문의 자제인데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스스로 앞서려고 하지 않고 아래에 처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집안에 재물이 많아서 의복을 사치스럽게 할 수 있는데도 항상 베풀어서 즐기는 것이며, 또 하나는 세력이 영화로우면서도 일찍부터 남들에게 그 세도를 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본 바는 이와 같습니다.”라고 했다.¹⁷⁾

이어서 『삼국유사』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랑(郎)은 아뢰기를 “저는 아름다운 행실 있는 자 셋을 보았습니다.(臣見有美行者三)”라고 하였다. 왕이 “그 설명을 들려주게.”하니, 랑은 아뢰기를 “사람들의 위에 있을 사람이 겸손하여 남들의 밑에 앉는 것이 그 하나요, 세력 있는 부자인데도 의복이 검소함이 그 둘째이며, 본래 귀족 위세의 사람인데도 그 위엄을 부리지 않는 것이 그 셋째입니다.”라고 했다.¹⁸⁾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김응림의 응답 기술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김부식의 『삼국

사기』에서는 ‘좋은 사람(善人)’ ‘좋은 행실(善行)’에서와 같이 ‘선(善)’자를 키워드로 사용했음에 비하여, 일연의 『삼국유사』에서는 그와 달리 질의어로는 ‘특이한 것(異事)’으로 표기하다가 그 실상은 ‘아름다운 행실(美行)’ 즉 ‘미(美)’자를 키워드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김응렴이 응답한 세 가지를 총칭해서는 ‘삼선(三善)’ 또는 ‘삼선행(三善行)’이라 할 수가 있고¹⁹⁾, 또 ‘삼미(三美)’나 ‘삼선행(三善行)’이라고 할 수도 있게 된다. 즉 ‘선(善)’이란 ‘악(惡)’에 상대적인 표현이고 미(美)는 추(醜)에 상대적인 표현으로서 어의가 서로 같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김응렴의 응답 내용은 동일한 것이므로 같은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 ‘삼선’으로서의 세 가지 설명에 내재한 핵심 가치를 덕목으로 표현하면 ‘검손’과 ‘검소’ 그리고 ‘관용’이라 할 수 있다. 즉, 위에서 소개한 김응렴 답변의 내면에서 읽혀지듯이, 자기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검손의 선덕은 자리 양보의 사례로써 확인시키고, 사치의식을 넘어서는 검소의 선덕은 소박한 의복차림의 사례로써 밝혔으며, 주변인에 대한 관용의 선덕은 기존의 위세를 스스로 자제하는 포용의 모습에서 확인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화랑 그룹의 선봉장으로서 활동했던 김응렴에 있어서는 도의를 연마하고 가악으로 즐기며 전국 곳곳을 다니며 실천하던 화랑 수련의 전통적인 결과가, 인물 알아보기의 의도를 담은 현안왕의 질문을 계기로 하여 그렇게 표출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 세 덕목을 ‘김응렴의 화랑정신’으로 칭할 수 있는 여지를 찾게 된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응답을 들던 현안왕은 또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 이 장면 역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분명히 전해주고 있다.

왕이 듣고서 묵묵히 있다가 왕후에게 귀속 말로 “내가 살피본 사람들이 많으나 응렴과 같은 자는 없었소.”라 하고, 자신의 딸을 부인으로 삼게 할 생각으로 응렴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랑(郎)은 자애하기 바란다. 나에게 딸자식이 있으니 짝을 삼게 하련다.”라고 하였다.²⁰⁾

왕이 그 말을 듣고서 ‘그가 어질다는 것을 알고(知其賢)’ 눈물 흐르는 줄도 모르며 이르기를 “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자네의 아내가 되게 하리라.”고 말했다.”²¹⁾

먼저 주목되는 부분은, 김응렴의 발언에 현안왕은 눈물의 감복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거기에는 인간다움을 향한 ‘좋은과 아름다움’을 담보하는 심성의 요소가 내재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훌륭한 리더십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위 인용문에서의 ‘지기현(知其賢)’이라는 부분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현안왕은 ‘그와 같은 인품을 처음 보는 것’이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아들 없는 그에게 잠재된 후

왕 구도의 과제 해결에 하나의 실마리를 찾은 듯이 내심 반가와 하면서 응렴에게 사위 될 것을 신중히 제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2. 현안왕의 여왕부정의식과 김응렴의 등극

임금으로부터 그와 같은 제의를 받던 국선 김응렴은 깜작 놀라면서 큰 절로 인사하고 돌아왔으나 생각할수록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20세와 19세의 두 공주 가운데 둘째가 더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보모님께 아뢰며 가족들과 논의하여 둘째 공주를 택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렇지만 응렴은 내심 최종 결심을 하지 못하다가 자신을 지도하던 승려 범교사(範敎師)를 만나게 된다.²²⁾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범교사는 목숨을 걸고 말했다. 즉 그는 “만일 동생을 취한다면 내가 랑의 면전에서 죽어버릴 것이고, 그 언니를 취한다면 반드시 ‘세 가지 좋은 것(三美)’이 있을 것이니 조심 경계하소.”²³⁾라고 이르면서 둘째 공주와 결혼하려는 것을 결단코 반대했다. 이에 김응렴은 기꺼이 그 말씀을 따르며 첫째 공주와 결혼하게 된다.

그렇게 결심한 4개월 후 즉 현안왕 5년 초 왕은 마침내 위독해진다. 그는 병석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했다.

정월, 왕이 병으로 위독하게 되자, 좌우 측근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불행히도 아들 없이 딸만 두었다. 우리나라 옛 일로 선덕(善德)과 진덕(眞德) 두 여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암탉이 새벽을 알리는 것(牝鷄之晨)’²⁴⁾에 가까우니, 법이 될 수는 없다. 사위 응렴은 나이 비록 적으나 ‘노련하고 성숙한 덕(老成之德)’을 갖추었으니, 경들이 왕으로 세워 받든다면 반드시 조종을 훌륭히 이어가는 실마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죽더라도 또한 마음을 놓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²⁵⁾

임금이 아들 없는 상황에서 딸을 후왕으로 삼았던 전례를 기억하면서 그것은 중국 고사의 속담에 비추어보거나 선덕여왕 때 국가 위급상황에 대한 국제적 비판론²⁶⁾ 등에 유의해 보면, 결코 따를 수 없는 제도로 단정하면서 사위 김응렴을 후왕으로 지목하는 내용이다. 즉 현안왕은 여왕 등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사위로 하여금 후계자를 삼는 방식인데 그의 인생 종말에서 그 실마리로 국선 김응렴을 만나게 된 셈이다.

위 발언에서도 확인되듯이 그 김응렴에 대하여 ‘노련하고 성숙한 능력자(老成之德)’로 공표했던 것 또한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 저변 확인을 위하여 현안왕은 국선 김응

림에게 ‘좋은 사람(善人)’을 키워드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고 또 소위 ‘삼선(三善)’으로 나타난 정황을 그렇게 읽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심성에서 전개되는 정치 리더십은 국가 최대 과제인 왕조영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그가 후왕으로 추대된다면 ‘죽어서도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까지 공언하였다.

그러한 유언을 따라 861년 1월 국선 김응림은 신라의 제48대 군왕에 등극하여 경문왕이 되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무렵에는 애초에 마음을 두었던 미모의 현안왕 둘째 딸까지 왕비로 삼았다. 그러면서 그는 범교사에게 “그 전에 말했던 세 가지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답하기를 “그 당시 왕과 왕비께서 뜻한 대로 되어서 기뻐하며 총애함이 더 깊어지게 된 것이 첫 번째요, 이로 인하여 임금의 큰 지위를 이어갈 수 있음이 그 두 번째이며, 결국은 처음부터 얻고자 했던 둘째 딸을 취하게 됨이 그 세 번째입니다.”라고 말하자 그가 크게 웃었다고 한다.²⁷⁾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김응림의 화랑도 수련이 뛰어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큰 인물 찾기’의 시대적 흐름을 따라 높이 평가되면서 국가의 최고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는 데에는 진흥왕대에 형성한 ‘도의(道義) 추구’의 맥락으로 기본 자질을 함양함으로써 착하고 아름다운 가치관을 표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에 처해서는 훌륭한 지도사범의 조언을 기꺼이 수용하는 지적인 용단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IV. ‘삼선(三善)’ 추구의 정치사회적 의미

6세기 중엽 진흥왕 때의 화랑 원론 첫 번째에서 ‘상마이도의(相磨以道義)’라 했듯이 화랑도의 정신적 키워드는 ‘도의(道義)’이었다. 즉 인생의 도덕적 요건이 제고되지 못하면 화랑이라 부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었을까? 이에 대하여 이병도는 특히 유교사상을 주목하며 충효(忠孝) 명절(名節) 무용(武勇) 정직(正直) 그리고 의리정신 등을 지적하였다.²⁸⁾

그러한 정신적 요소들은 지행일치의 신념과 실천력 제고의 수련과정을 거치며 국난 극복과 사회 안정의 활력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660년 백제가 항복하고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에는 하나의 통일국가로 정립되는 것이었으므로, 근 1백년간 화랑들로 하여금 맹위를 떨치게 했던 임전무퇴(臨戰無退)의 신념은 더 이상 강조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면 그 화랑도의 정신적 주맥은 어떠한 방향으로 심화 견지되어가는 것이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최치원의 이른바 유불도 삼교 포괄성격으로서의 ‘현묘지도(玄妙之道)

론'이 주목되는 것이요, 그와 같은 배경에서 삼선행(三善行)·삼미행(三美行) 발언으로 표출되던 김응림의 가치관²⁹⁾ 또한 높이 평가되는 것이었다. 이들은 투쟁이나 갈등 상황을 초월하여 화목과 공존의 미래를 지향하는 사회 윤리적 성격을 담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또 그 이후의 오늘날에 있어서 '겸손'과 '검소' 그리고 '관용'의 덕목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 바 '삼선(三善)'에 내재한 정치사회적 의미는 어떻게 설명되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의 응답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우선 1950년대 이선근의 평론이 주목된다. 당시 그대로의 기술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보라! 오늘의 세상(世相)은 그 어떠하나. 이제까지 남에게 배우고 남의 덕분에 사러온 인물도 오날 요행하게 감투나 쓰고 벼슬자리에 앉았다면 스승도 선배도 의리도 은택도 다 저버리고 오만 자존하여 방약무인(傍若無人)한 것이 사실이니, 양심을 소유한 자 어찌 국선(國仙) 응림(膺廉)이 지적한 '남의 위에 있으면서 겸손하여 그 밑자리에 있을 수 있는' 미덕을 흠양치 않을 수 있으랴. 다시 보라! 간상(奸商)이 모리(謀利)질을 하여서라도 돈푼이나 모았다면 친척 붕우와 사위(四圍)의 동포가 기한에 방황하든 말든 그 자신 주지육림(酒池肉林)에서 호의호식하려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니 국선 응림이 지적한 '호부(豪富)라 하더라도 검의소식(儉衣素食)할 수 있는' 그 미덕이 무척 그리운 것이다. 말관말직의 순경복장만 입어도 천하를 뒤엎는 권세나 차지한 듯이 적세(籍勢)하고 발호하는 패가 발길에 채이도록 너더분한 세상이니 국선 응림이 지적한 '본래 귀한 세력을 가지고도 그 위엄을 쓰지 않는' 미덕이 그 어이 그림지 않을 소냐.³⁰⁾

김응림의 발언 세 영역의 핵심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 당시의 정치사회 병리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작용인으로 찬미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 삼선(三善)의 가치는 9세기의 신라시대뿐만 아니라 사회 공공성 추구의 사회 현장에서는 언제나 높이 평가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를테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사회불안이 점증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 지향성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이다. 겸손함이 결여된 삶의 현장에서는 상호간의 쟁탈의식이 더욱 격화될 것이요, 검소의 미덕이 상실된 생활 현장에서는 나만의 사치의식을 촉발시켜 사회적 위화감이 심화될 것이며, 관용의 여유가 잇어진 현실에서는 상명하복의 패권주의적 지배 행태가 난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교 고전에서는 예(禮)의 기본으로 검소함을 강조하고 또 윗사람다움의 핵심으로는 관용의 태도를 중시하기도 했다.³¹⁾

만일, 국선 김응림의 안목에서 단순히 사회질서 확립의 측면만 중시되었다면, 그와 같이 행동의 겸손함이나 의상의 검소함 그리고 힘 센 자들의 관대한 모습을 가장 좋은 미덕으로 지적하여 진언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강인한 사회 질서는 기존의 계

층적 신분 의식, 경제적 능력에 따른 옷차림이나 장식물, 이미 얻은 권세에 기인하는 상하의 분별 의식 등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에게서는 도대체 어떠한 사회를 이상으로 그려졌기에 특별히 그 세 가지를 지목하는 것이었을까? 이러한 방향에서 그의 발언 배경을 숙고해보면, 근 1천년 가까이 지속된 신분사회 속의 차별적 대립상이나 경제적 위화감과 같은 요소들은 내재적 적폐(積弊) 현상으로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충만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그 결과적 양상이 ‘삼선(三善)’으로 나타났음을 볼 때에는, 그러한 고민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연스레 삶의 가치를 일깨우게 하는 동시에 화해 공존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 ‘삼선’ 중시의 지향점은, 결국 ‘큰 도리가 실현되어 나의 가족 사랑이 나만의 가족에 머물지 않고, 재물이 소중하되 나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유교의 ‘대동(大同)사회론’³²⁾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화랑의 기본인 ‘상마이도의(相磨以道義)’의 전통을 따라 그 수련의 경과 확인 단계에서 나타난 김응림의 화랑정신 즉 겸손과 검소와 관용의 태도를 제일의 미덕으로 지목하여 공표하던 일은, 결코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것은 아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내면을 발현하도록 ‘좋은 것으로는 무엇을 보았던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발언의 속뜻을 제대로 읽으며 ‘어짐(賢)’과 ‘노성(老成)의 덕’으로 평가했던 현안왕의 역량 또한 범상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즉, 여기서 우리는 “오직 어진 자라야만이 사람들을 제대로 좋아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다.”³³⁾라는 공자의 인물 평가 요건의 최적 사례를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나아가 김응림이 등극해서는 그 ‘삼선’의 요소가 국정의 저력으로 작용했을 것이지만, ‘당시의 국선들로 하여금 노랫말을 짓게 하며 기뻐했다.’라는 기록³⁴⁾에서는 화랑 원론에서의 두 번째 요소인 ‘서로 노래와 풍류로 즐김(相悅以歌樂)’의 흐름이 읽혀진다. 즉 상대적 차별 의식을 넘어서는 그의 가치 의식은 더욱 큰 힘을 가지며 당시까지 그를 따르던 수많은 낭도들을 통하여 노래와 풍류의 분위기를 타고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갈 수 있었던 모습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의 저변을 숙고해 보면, 그가 왕이 되어 나타났다는 특이한 모습들³⁵⁾은 ‘그저 하나의 조롱거리로만 치부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라 여겨진다. 즉 침실에서 뱀들과 함께 지내기를 즐겨했다는 것은 최치원 「난랑비서문」에서의 이른바 ‘여러 생명들과 사귀어 화옹하는 것(接化群生)’과 연계되는 측면으로 해석될 만하고, 또 ‘그의 귀가 당나귀의 귀처럼 컸다는 것’은 일국의 지도자로서 남달리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어본다는 여유로움으로 풀이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신라시대 조형

물에서 부처의 귀가 어깨에까지 이를 정도로 크게 그려내던 경우에서도 어떠한 조롱이나 나쁜 의미를 담아내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와 더불어 생각해볼 만한 대목이다.

V. 결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신라 인물 찾아내기의 화랑제도가 흥기하던 진흥왕 때로부터 근 3백년 이후에 왕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난 김웅림은 청소년기에 화랑의 일원으로 참여하다가 그 최고 지위인 '국선'에 올라 산천 여러 곳을 다니며 수련하던 중의 조정연회에서 현안왕을 뵈게 된다. 그리고 그는 임금으로부터 그동안의 경험에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바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겸손'과 '검소' 그리고 '관용'의 태도를 가장 좋게 여긴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 문답의 키워드로 『삼국사기』에서는 '선인(善人)' '선행(善行)'이라 하여 '선(善)'자가 쓰였고 『삼국유사』에서는 '미행자삼(美行者三)'에서와 같이 '미(美)'자가 쓰이던 다름이 있으나, 이 두 용어는 모두 진흥왕 시기에서의 화랑 원론에서 확인되는 공통성³⁶⁾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웅림의 응답 내용을 기술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던 것이므로 필자는 이를 '그의 화랑정신'으로 규명하였다. 그리고 그 미덕의 가치관 세 가지를 총칭해서는 선행 기술인 『삼국사기』에서의 '선(善)'자를 따라 '삼선(三善)'으로 지칭하였다.

이에 대한 현안왕의 평가 그리고 그로부터 벌어지던 등급 과정에 대해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거니와, 거듭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9세기 중엽의 국선 김웅림에 있어서 오직 그 세 가지를 지적하던 안목의 저변은 어디에서 비롯하는 것이었고 또 거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내재된 것이었을까?'라는 의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를 말할 수 있겠다.

첫째는, 진흥왕 때에 형성된 화랑수련 초기의 핵심인 '서로 도의로써 연마함(相磨以道義)'에서의 '도(道義)'의 뜻하는 바가 시대적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6세기 중엽 형성된 화랑도의 보편적 가치관은, 점차 격화되는 삼국의 전쟁과 통일 국가 전개의 시대적 과업을 따라 '임전무퇴'로 상징되는 충성·용기의 정신을 높이 여기는 것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위 '삼선'과 같은 평화사회의 요건을 제일로 여기는 형태로 전향되는 모습이었던 사실이다. 그리하여 김부식은 통일신라 말기 화랑도의 양상을 확인시켜주고자 유불도의 습합형태로서 최치원의 이른바 '현묘지도(玄妙之道)'까지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랑도의 실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형성되던 초기 부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화랑' '국선'이라는 용어가 쓰이던 그 이후의 모든 상황도 널리 관찰해보려는 관점의 확장이 요구된다.

둘째는, '골품제(骨品制)'와 같은 신라의 신분제도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됨으로써 쌓이게 된 적폐(積弊)를 제거하고자 하는 진취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사회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예로부터 견지된 차별적 신분의식을 재확인시키고 사회의 각 구성원들로 하여금 각각의 지위·처소를 따라 엄격히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던 그대로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선 김응림이 지적하고 또 현안왕이 감복한 그 '삼선'의 내용, 즉 윗자리에 앉을만한데도 내려앉으려 하는 겸손함이나, 사치할 수 있는데도 보통 의상으로 자족하는 검소함, 그리고 지배적 위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은 관용됨 등의 성향들이 높이 평가되는 데에는, 그 신분적 차별성을 넘어서려는 '화해의 공경사회 건설'이라는 특별한 문제의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그 문답과 평가 및 등급 과정에서 외관상 잘 들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셋째는, 그 '삼선'의 미덕이 비록 1천백여년 전 신라의 최고 계층에서 칭송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점이다. 인간 존중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제일로 여기는 민주시대의 오늘날에 있어서도 인간 존엄성의 가치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화감 방치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선'의 하나인 겸손의 미덕은 상대를 존중함으로써 결국은 자신도 존중받을 수 있는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그 도덕적 의의가 지대한 것이요, 검소의 미덕은 절제의 만족감 속에 그 쓰임의 폭을 넓혀가면서도 남들에게 위화감을 남게 하지 않도록 한다는 사회적 공공성 확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또 관용의 미덕은 여러 방면에서 나약한 자들에게도 사회 구성의 일원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는 즐거움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공존적 여유의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아무리 좋은 가치와 덕목이라 하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허상일 뿐이다. 하지만 그 실현의 노력과 실천 사례가 저 윗사람들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면 그 영향력과 실효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화랑의 기본으로 내세운 '도의'의 가치, 그리고 그 후기의 국선 김응림과 현안왕 사이에 리더십의 요체로 확인된 '삼선'의 의미는 지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 화랑들을 존경하고 섬겼다.'라는 당나라 영고징의 논평 그 이면을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다. 신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었고 또 그 해결을 위해 수준 높은 지행합일의 인재 등용의 필요성을 절감하다가 ‘도의’의 길을 생명으로 여기는 아름다운 청년들을 화랑도로 양성시켜 국가의 동력으로 삼아왔던 바, 그 흐름은 근 4백년간 계속되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도덕국가 건설 과제도 위로부터의 실천성이 겸비된 양상으로 전개된다면, 우리들의 생활문화는 더욱 안정된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이요, 현장의 도덕교육자들은 스스로 그 기반을 복돋우는 데에 혼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金富軾(조선사학회편, 1928), 『三國史記』 近澤商店印刷部.
- 金富軾(김종권 역, 1979), 『三國史記』 서울:광조출판사.
- 一然(이민수 역, 1982), 『三國遺事』 서울:을유문화사.
- 김범부(1980), 『花郎外史』 대구:이문출판사.
- 이선근(1954), 『花郎道 研究』 서울:동국문화사.
- 아세아학술연구회(1973), 『한국민족사상사대계 2(고대편)』 대구:형설출판사.
- 안호상(1977), 『민족의 주체성과 화랑열』 서울:배영출판사.
- 이기백(1986), 『신라사상사 연구』 서울:일조각.
- 이도학 외(1992), 『신라화랑 연구』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고려원).
- 이병도(1989), 『한국유학사』 서울:아세아문화사.
- 한국사상연구회(1974), 『한국사상사-古代篇-』 서울:법문사.
- 김철준(1970), “삼국시대 禮俗과 儒敎思想” 『大東文化研究』 제6·7집.
- 김충렬(1971), “花郎五戒의 思想背景考” 『亞細亞研究』 제14권4호.
- 이병도(1957), “壬申誓記石에 대하여” 『서울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 제5집.
- 조남욱(2014), “신라 화랑도에 내재한 유교사상” 『倫理敎育研究』 제35집.
- 천인석(1989), “신라 유학사상 전개에 대한 일고찰” 『대구한의대논문집』 제7집.
- 황원구(1965), “<史記>로 밝힌 三國時代 - 金富軾」 『韓國의 人間像 4』 (신구문화사).
- 황형주(2002), 「<삼국사기, 열전> 찬술과정의 연구」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n the Hwarang's Mind of Eunglyum Kim in the point of the Thought of Silla's Hwarang

Cho, Nam-Uk

In the period of Silla, Hwarng(花郎) is a youth group for the purpose of training desirable government officials. The system was formed in the mid 6th century(in the reign of King Jinheung). And the group of Hwarngs was armed with the spirit of knowing no retreat at a battlefield to leading the unification. But be a peace time, don't need such a spirit. A morality for peaceful coexistence was emphasized.

These cases can be seen on the action of Eunglyum Kim(金膺廉) the middle of the 9th century. He was a royal family and also the captain of the Hwarangdo(花郎徒). He was asked from the king Heunan in the royal party. "What is this a good thing in an excursion during that time?" About this question, Eunglyum Kim pointed out the humility, frugality, tolerance in the people living. These views are respected in the King's political line. Because the King think that he can overcome the negative effects arising from a caste system of long time. And then finally he was 48 units of Silla king Gyungmoon.

Through this consideration, we find that the thought of Hwarng(花郎道) is based on the human morals and the elements of social leadership.

Key words : Hwarng, the thought of Hwarng, the mind of Hwarng, knowing no retreat at a battlefield, three virtues, Eunglyum Kim, King Jinheung, King Gyungmoon.

* 논문 접수 2016년 4월 30일 / 수정본 접수 5월 26일 / 게재 승인 5월 30일

- 1) 김범부(1981)는 『花郎外史』에서 그 주요 위인의 예로서 사다함, 김유신, 비령자, 김흠운 등의 이름난 무인들을 소개하고 있다.
- 2)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진흥왕'37년. : 金大問 花郎世記曰 賢佐忠臣 從此而秀 良將勇

卒 由是而生.

- 3) 조남옥(2014), 「신라 화랑도에 내재한 유교사상」 『倫理教育研究』 제35집, 413-433쪽.
- 4) 신라 제 43대 희강왕의 손자이고 부친은 아찬 김계명(金啓明)이며 모친은 신무왕의 딸 광화부인이다. 현안왕의 사위로 경문왕이 된 재위기간은 861년부터 875년까지이다.
- 5)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진흥왕'37년. : 春 始奉源花 初君臣病無以知人 欲使類聚群遊 以觀其行義 然後舉而用之 遂簡美女二人 一曰南毛 一曰俊貞 聚徒二百餘人 二女爭媚相妬 俊貞引南毛於師第 強勸酒至醉 曳而投河水以殺之 俊貞伏誅 徒人失和罷散 其後更取 美貌男子 粧飾之名花郎以奉之 徒衆雲集.
- 6) 김부식은 화랑 관련 기록들을 종합하여 밝히던 위 '진흥왕 37년 기사'의 말미에서 당나라 승孤澄이 쓴 「신라국기(新羅國記)」를 인용하며 그와 같이 즉 “唐令孤澄新羅國記曰 擇貴人子弟之美者 傅粉粧飾之 名曰花郎 國人皆尊事之”라고 소개했다.
- 7)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진흥왕'37년.
- 8) 그와 같은 '화랑도(花郎道)' 논의의 핵심을 따라 이병도는 그 세 가지를 '화랑도(花郎徒)의 특징'으로 지목하였다. 이병도(1989), 『한국유학사』 37~42쪽.
- 9) 1934년 경주 석장사지 근처에서 발견된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에는 두 청년이 '충도(忠道)'를 궁행하고자 하늘 앞에 약속하면서 바로 그 전년부터 3년 동안 그러한 고전을 차례로 보아 이해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병도 「壬申誓記石에 대하여」 『서울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 제5집(1957) 참조.
- 10)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진흥왕'37년. : 崔致遠 鸞郎碑序曰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群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化也
- 11) 귀산(貴山)과 추항(籌項)이 원광법사를 찾아서 가르침을 청하고 '세속오계'를 배우던 사실을 밝힌 기사는 『삼국사기』 「열전」 제5의 '귀산'조와 『삼국유사』 권4의 '원광서학(圓光西學)조'에 전한다.
- 12) 이선근(1954), 『화랑도 연구』 7쪽. : “花郎의 五戒'라고 명시한 바는 없으나 불교의 고승인 원광법사가 귀산 등에게 이르되 '너희들은 남의 臣子라'는 전제 아래 '菩薩十戒'를 권하지 않고 신자가 지켜야 할 당시의 '世俗五戒'로서 대신한 것이니 年代로 보아 이즈음은 화랑도가 전성하였던 시기이요, 국가적인 方針과 權威 아래 청년교육 청년훈련의 지침이 되었던 터이라 어느 모로 비추어보든지 佛教僧의 보살십계 이상으로 당대 청년에게 권할 수 있는 것이라면 비록 '世俗'이라 하였지만 화랑도의 '戒'이었음이 틀림없다. '世俗'은 普遍을 의미하니 當代青年들에게 보편된 교훈이라면 花郎道의 所産 이외에 별 것이 없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 13) 김충렬, 「花郎五戒의 思想背景考」 『亞細亞研究』 제14권4호(고려대학교출판부, 1971.) 205~223쪽.
- 14)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1 '현안왕' 4년. : 秋九月 王會群臣於臨海殿 王族膺廉 年十五歲 預坐焉 王欲觀其志 忽問曰 汝遊學有日矣 得無見善人者乎.
- 15) 『삼국유사』 권2 「제48대 경문대왕」 : 王諱膺廉 年十八爲國仙 至於弱冠 憲安大王召郎 宴於殿中 問曰 郎爲國仙 優遊四方 見何異事.
- 16) '善人'이란 단어를 '착한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사람'으로 풀이하는 것은, 진흥왕 때의 화랑원론 말미의 '擇其善者 薦之於朝'에서의 '善'자와 성격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17)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1 '현안왕' 4년. : 答曰 臣嘗見三人 竊以爲有善行也 王曰何如 曰 一 高門子弟 其與人也 不自先而處於下 一 家富於財 可以侈衣服 而常以麻紵自喜 一 有勢榮 而未嘗以其勢加人 臣所見如此.
- 18) 『삼국유사』 권2 「제48대 경문대왕」 : 郎曰 臣見有美行者三 王曰 請聞其說 郎曰 有人爲人上者 而擲謙坐於人下 其一也 有人豪富 而依儉易 其二也 有人本貴勢 而不用其威者 三也.
- 19) 안호상은 그 세 가지를 '겸손' '검소' '관용'으로 요약하면서 모두를 포괄하여 '삼선(三善)' 또는 '삼선행(三善行)', '삼미행(三美行)'이라고 지칭했다. 안호상(1977), 『민족의 주체성과 화랑

일』 211쪽.

- 20)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1 ‘헌안왕’ 4년. : 王聞之默默 與王后耳語曰 朕闕人多矣 無如膺廉者 意以女妻之 顧謂膺廉曰 願郎自愛 朕有息女 使之薦枕.
- 21) 『삼국유사』 권2 「제48대 경문대왕」 : 王 聞其言而知其賢 不覺墮淚 而謂曰 朕有二女 請以奉巾櫛.
- 22) 그 만남의 경위에 대하여 『삼국사기』에서는 김웅림이 흥륜사에 있던 그 범교사를 찾아가 문의하는 형태로 기술되어 있으나, 『삼국유사』에서는 ‘둘째 공주를 택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범교사가 웅림의 집으로 찾아가서 만나는 형태로 묘사되어 서로 상이함을 보게 된다.
- 23) 『삼국유사』 권2 「제48대 경문대왕」 : 師曰 郎若娶弟 則予必死於郎之前 娶其兄 則必有三美 誠之哉.
- 24) 그 ‘빈계지신(牝鷄之晨)’이란 ‘암탉이 울음소리로 새벽을 알린다.’는 뜻으로서, 새벽을 알리는 울음은 수탉의 경우가 정상인데 거꾸로 되었음을 지적하는 말이다. 그 어원은,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왕 주(紂)가 ‘달기’라는 여인에 빠져 국정을 챙기지 못하고 파탄에 빠지는 형국에 대하여 옛사람의 말을 빌어서 “암탉은 새벽이 없다. 암탉이 새벽을 알리는 집안이 망하는 것이다.(牝鷄無晨 牝鷄之晨 惟家之索. 『書經』 「周書」 ‘牧誓’)”라고 말하면서 정벌을 당연시한 데서 비롯한다.
- 25)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1 ‘헌안왕’ 5년. : 春正月 王寢病彌留 謂左右曰 寡人不幸無男子有女 吾邦故事 雖有善德眞德二女王 然近於牝鷄之晨 不可法也 甥膺廉年雖幼少 有老成之德 卿等立而事之 必不墮祖宗之令緒 則寡人死且不朽矣.
- 26) 선덕여왕 때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으로 당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자 당 태종은 “부인으로 임금을 삼아 이웃나라로부터 경멸과 모욕을 받아 임금을 잃을 정도로 도적들을 불러들여 편안한 때가 없게 되었다.”라고 여왕체제를 비판하였고(『삼국사기』 「신라본기」 선덕왕 12년 조), 그 시대를 총평하던 고려의 김부식 또한 『서경』에 전하는 그 ‘빈계지신(牝鷄之晨)’의 발언을 빌어 비정상적으로 평가했다.
- 27)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1 ‘경문왕’ 3년. 『삼국유사』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밝힌 것은 물론, 그 범교사에게 ‘대덕’이라는 품계와 130냥의 큰 상을 내렸다는 사실까지 전한다. 다만 그 세 가지에 관하여 『삼국사기』에서는 ‘有益’이라 표현했음에 비하여 『삼국유사』에서는 ‘三美’로 표현하는 차이가 있었다.
- 28) 이병도(1989), 『한국유학사』 37쪽.
- 29) 三善, 즉 겸손, 검소, 관용의 덕목이 지적되는 사상적 배경의 하나로서는 『道德經』(67장)에서의 이른바 “我有三寶 寶而持之 一曰慈 二曰儉 三曰不敢爲天下先.”라는 구절이 주목되기도 한다.
- 30) 이선근(1954), 『화랑도 연구』 9-10쪽.
- 31) 『論語』 「八佾」 편을 보면, ‘예의 기본’에 대한 질문에서 공자는 “예에서는 사치함보다는 검소함이 좋다.(禮 與其奢也 寧儉)”라고 응답했고, 또 “위 자리에 있으면서 관용하지 않는 태도는 보아줄 수 없다.(子曰 居上不觀 … 吾何以觀之哉)”라고 말한 구절이 발견된다.
- 32) 유교에서 ‘大同’이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일치된 상태를 가리키고(『書經』 「周書」 ‘洪範’), 그 사회 구성원 그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요지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禮記』 「禮運」).
- 33) 『論語』 「里仁」 : “子曰 唯仁者 能好人 能惡人.”
- 34) 당시의 국선 요원랑(邀元郎)·예혼랑(譽昕郎) 등으로 하여금 노랫말을 지어 올리도록 한 후 그 작품들(玄琴抱曲, 大道曲, 問群曲)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포상했다는 사실이 전한다. 『삼국유사』 권2 「제48대 경문대왕」
- 35) 그 특이한 모습의 하나는 침실에 뱀이 우글거려 궁인들이 놀랐지만 경문왕은 “내게 뱀이 없으면 편안히 잘 수가 없으니 쫓아내지 말라.”고 말했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오직 왕관 장식 담당자만이 그의 귀가 남달리 큰 것을 보고 홀로 도림사 대밭에 가서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와 같다.”고 소리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삼국유사』 권2 「제48대 경문대왕」

- 36) '선(善)'자와 관련해서는 그 화랑 원론에 있는 '擇其善者'에서의 '善'자로, '미(美)자'와 관련해서는 그 서두 '美貌男子'에서의 '美'자로 그 연원의 공통점을 볼 수 있다.